

청소년 학업중단의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

손충기¹, 배은자¹, 김영태^{1*}
¹원광대학교 교육학과

An Analysis Study on Family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of Adolescents' School Dropout

Chung-Ki Son¹, Eun-Ja Bae¹ and Young-Tae Kim^{1*}

¹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시 상담 센터에 접수된 120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을 측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족 구조적 요인으로서 가정경제수준과 결혼가정은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 요인을 매개로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족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갈등은 학업중단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며, 가족유대감은 일탈친구와 무단결석 요인과 결합되어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무단결석은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 일탈친구는 가족유대감과 무단결석 요인을 매개로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은 주로 가족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유대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일탈친구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의 개선 혹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is the path that family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of adolescents lead to school dropout called educational crisis behavior. To investigate these research problems, the path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lated data and variations after interview with 120 crisis adolescents in 'J Youth Counseling Center' in Jeon-ju City. B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family ties as a familial factor and the deviation friends as a socio-environmental factor had an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dropout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reform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family and school friends for preventing and solving the adolescents' crisis behavior such as school dropout behavior.

Key Words : School dropout, Family factors, Socio-environmental factor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그들의 발달과업의 해결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감과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이어져 적응기제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학생시절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업중단 행위는 정상적인 학습기회로부터 이탈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진로 개발과 선택 및 사회성 기술의 계발 기회의 차단 등

자연스런 성인생활의 준비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업중단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조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므로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것이어서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사회는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학교 활동에의 소극적인 참여, 학습부진이나 학업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주변환경의 급변,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기청소년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Young-Tae Kim

Tel: +82-10-2877-7536 e-mail: kytkyt@wku.ac.kr

접수일 12년 03월 27일

수정일 12년 05월 11일

게재확정일 12년 06월 07일

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OECD는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위기로 보았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하여 직업이나 독립적인 삶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 중도탈락이므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속감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져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1].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청소년은 가족의 일원이며 가족은 청소년 성장의 지원체계이다. 따라서 가정은 청소년 성장발달의 일차적인 관계망을 제공하는 환경이다.

건강한 가족 환경에서의 성장경험은 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자아성취감, 대인관계기술 등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새로 형성해 가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장경험이 청소년의 중도탈락의 보호요소로 작용하고 [2], 부모와의 친밀도와 의사소통의 결여, 부모의 관심과 감독의 부족은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위를 증가시킨다[3]. 시설보호 청소년에 대한 연구[4]에서도 원가족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시설보호 이전에 경험한 원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를 냉정함, 무관심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많이 보였다. 특히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는 비행,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여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5]에서도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불충분한 자녀감독과 부적절한 훈육 등 가족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 가족과의 생활이 청소년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위기가정 청소년, 특히 빈곤, 부모의 이혼, 소년소녀가장, 기타 결손가정, 부모의 실직, 가정해체 등 취약한 가정환경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맞물렸을 때, 빈곤하지 않는 가정, 이혼하지 않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정서적이고 인지적 발달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6]. 또한, 결손가정청소년은 일반가정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며 더 낮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7].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실직, 빈곤, 가족의 결손과 해체라는 가정환경의 형태를 비교하여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

의 부적응을 다루고 있다. 즉, 가정 환경적 위험 때문에 청소년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하위문화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비행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4].

위기청소년 중 특히 청소년의 학업중단 현상은 그 역사가 학교교육의 역사만큼 오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즉, 1990년대 이전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와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8]들이어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바탕하여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 위기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면담 조사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요인인 결손가정과 가족유대감 요인에 주목하여 위기청소년이 학업중단이라는 교육적 위기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의 경로를 밝히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의 목적은 이로 인해 위기가정이 처한 위험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진행경로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처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구조적 요인, 가족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위기청소년의 가족구조적 요인(가정경제수준, 결손가정)은 어떤 경로를 거쳐 학업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 <연구문제 3> 위기청소년의 가족심리적 요인(가족갈등, 가족유대감)은 어떤 경로를 거쳐 학업중단행동으로 이어지는가?
- <연구문제 4> 위기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무단결석, 이탈친구)은 어떤 경로를 거쳐 학업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9세이상 19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120명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의 문제행동으

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받았거나 일시 보호소에 의뢰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1일에서 2008년 2월 15일까지 위기청소년을 면담하고 필요한 요인의 측정을 한 후 자료를 정리하여 120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과정은 청소년 위기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 또한 자발적인 위기청소년의 경우도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응답하도록 유의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위기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위기청소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9]에서 위기청소년 평가체계의 일환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개발 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요인은 25 문항이다. 하위영역은 개인, 가정, 또래·학교, 지역사회 영역이다. 하위영역별 위험요인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이미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이므로 위험요인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 .69로 양호한 편이다.

[표 1] 위기스크리닝 척도
[Table 1] crisis screening scale

하위요인	위험요인
개인영역	1. 자아개념
	2. 우울과 목표의식
	3. 불안
	4. 기타 정신건강 문제 여부
	5. 지능
	6. 술, 담배
	7. 성적관심, 성관계 여부
가정영역	8. 가족 간 갈등여부
	9. 부모관계
	10. 비행형태 여부
	11. 부모의 범법행위 여부
	12. 부모의 정신건강
	13. 가정의 경제적 상태
	14. 가족의 사회적 고립 여부
또래 및 학교영역	15. 약물사용친구 여부
	16. 비행친구여부
	17. 성매매하는 친구 여부
	18. 친구관계
	19. 교사와의 관계
	20. 학업흥미 및 성취도
	21. 잦은 무단결석
지역사회영역	22. 집 주위 환경
	23. 지역사회의 지원여부
	24. 지역사회의 폭력성
	25. 지역사회의 위해환경 여부

2.2.2 위기청소년 면접질문지

위기청소년이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등 5가지의 위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외국문헌을 번안하고 국내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면접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내용으로 12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예비조사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 면접결과를 근거로 전문가회의를 열고 위기행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문항의 타당성을 10점의 척도로 평가하여 8점 이상의 척도 문항만을 채택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대학교수 2인(교육학, 사회복지학), 조사자 13인(사회복지학박사 1인,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자 1인, 교육학박사 1인, 심리학박사 1인, 심리학 박사과정 수료자 1인, 청소년상담사 3인, 사회복지사 5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질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위기청소년 위기행동 면접 질문지
[Table 2] crisis behavior interview questionnaire

구 분	위기유형	질문내용
첫 시기	학업중단	처음 학업중단을 마음먹은 시기, 학업중단 시기
	학교폭력	처음 학교폭력을 한 시기
	가출	처음 가출을 마음먹은 시기, 가출시기
	비행	처음 비행을 한 시기, 비행의 종류
	인터넷중독	자신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인지 정도, 시기
원인	학업중단	학업중단원인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원인
	가출	가출한 원인
	비행	비행원인
비행 후 행동	인터넷중독	자신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
	학업중단	학업중단 후 위기행동
	학교폭력	학교폭력 후 위기행동
	가출	가출 후 위기행동
	비행	비행 후 위기행동
	인터넷중독	인터넷 중독 후의 위기행동

2.2.3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의 영향 척도

가족유대감 척도는 [10]의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자료출처: 미국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가족유대감 척도는 응답자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족유대감 척도는 부모 영향의 중요성, 가족 간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 부모의 온정적 정도, 부모의 지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유대감 척도 점수는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균값이다. 각 응답범주는 ‘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간의 일관

성을 측정해 본 결과, 네 가지 항목들은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 .85이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80이었다.

일탈친구의 영향 척도 역시 [10]의 '성별에 따른 일탈 행동 성장경로의 차이'(자료출처: 미국 ICPSR에서 사용한 것이다. 일탈친구의 영향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친구의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각 항목의 응답 범주는 '전혀 없다', '극소수이다', '다소 있다', '대부분이다', '전부이다'이다. 일탈친구의 영향은 위의 항목들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는 .84 이었으며, 원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도구화한 일탈친구의 영향 척도의 Cronbach' a는 .87이었다.

2.3 용어의 정의

2.3.1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이란 OECD(1995)에서는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또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으로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비행, 인터넷 중독 문제를 2개 이상 표출한 청소년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9,11]의 점수가 17/24점 이상인 경우를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2.3.2 학업중단

학업중단은 학업이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면접 조사 이전 학업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를 학업중단으로 규정한다.

2.3.3 가족 구조적 요인

이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의 가족 구조적 요인은 가정경제 수준과 결손가정으로 제한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월수입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에서 500만원의 범위에서 상, 중, 하로 수준을 나누었다. 또, 결손가정(broken family)이란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부족한 형태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모의 존재이다. 따라서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없거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가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 머무르고 싶지 않은 가정이다.

2.3.4 가족 심리적 요인

이 연구에서 학업중단의 가족심리적 요인은 가족갈등과 가족유대감으로 제한한다. 가족갈등이란 가족 사이에 상반된 견해, 처지, 이해 등이 얽혀 모순되고 복잡한 관계나 상황을 뜻한다. 이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유대감이란 가족을 결합시키는 기능이나 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영향의 중요성을 가족과 약속한 귀가시간 준수 정도, 가족 간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가족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식사의 정도, 부모의 훈육과 온정적 정도를 잘못에 대한 가족의 부드러운 훈계의 정도, 부모의 지원을 용돈 학비 등의 물질적 지원정도를 1에서 5점 수준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대감이 강한 것으로 본다.

2.3.5 사회환경적 요인

이 연구에서 학업중단의 사회환경적 요인이란 무단결석과 일탈친구를 일컫는다. 무단결석이란 사전에 연락이나 허락 등 아무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탈친구란 정상적인 행동과 대립되며 사회규범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의미한다. 일탈친구의 영향은 응답자들에게 일탈행동을 저지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하였다. 일탈친구의 영향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친구의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이었다. 상관분석은 변수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경로분석에서는 공분산이나 상관관계수에 의해서 인과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수에 의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쉽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며 전체 모형의 적합성 평가보다는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을 측정모형에서 사용하므로 하위개념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지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의 영향의 요인분석에는 AMOS 16, 신뢰도 검증에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각 변인별 상관관계 검증

청소년의 가족구조적 요인과 가족심리적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과 위기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유대감과 위기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일탈친구와 무단결석이 청소년의 위기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특히 가족 요인에 해당하는 가족유대감과 위기행동 간, 사회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일탈친구가 가족유대감 간에 높은 상관이 있어 이것이 본 연구의 청소년 위기유형(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히는 기초가 된다.

[표 3] 각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each variables

구 분	가족구조적 요인		가족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경제수준 (그룹화)	결손 가정	가족 갈등	가족 유대감	일탈 친구	무단 결석
결손가정	-.338**					
가족갈등	.112	-.080				
가족유대감	-.261*	-.252*	-.218			
일탈친구	.180	.187	.162	-.525**		
무단결석	-.013	.137	-.151	-.231*	.224*	
위기행동	.012	.097	.153	-.305**	.391**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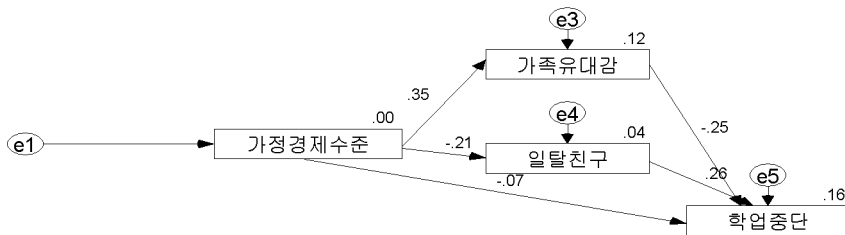
* p<.05 ** p<.01 (N=120)

3.2 학업중단 경로모형 분석 결과

3.2.1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는 가족유대감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일탈친구와 부적 상관의 경로를 거친다[그림 1]. 가정경제수준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7이다. 가정경제수준 변인과 가족유대감변인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5, 가정경제수준변인과 일탈친구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1이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5, 일탈친구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수준이라는 구조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나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학업중단 행동에 가족유대감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이 매개변인으로써 이 두 변인은 p<.001 수준에서 학업중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1]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1]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socio-economy status

[표 4]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Table 4]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socio-economy status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90.247	1	.000	.956	-.440	.905	.994	.137	108.247

3.2.2 청소년의 결손가정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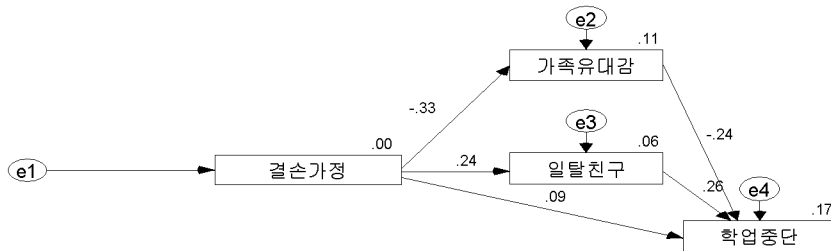
청소년의 결손가정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는 가족유대감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일탈친구와 정적 상관의

경로[그림 2]를 거친다. 결손가정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9이다. 결손가정 변인과 가족유대감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3, 결손가정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

수는 .24이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4, 일탈친구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결손가정이라는 구조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나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손가정 변인이 학업중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유대감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이 매개변인으로써 학업중단 행동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그림 2] 청소년의 결손가정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2]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broken-family

[표 5] 청소년의 결손가정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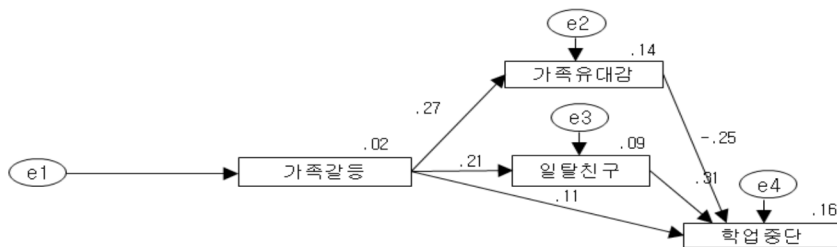
[Table 5]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broken-family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87.657	1	.000	.859	-.411	.916	.905	.128	105.657

3.2.3 청소년의 가족갈등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청소년의 가족갈등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와 [그림 3] 경로분석의 적합도 검증 결과 [표 6]를 보면, 가족갈등은 학업중단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즉, 가족갈등 변인과 학업중단 변인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11이다. 가족갈등과 가족유대감사이의 회귀계수는 .27,

가족갈등과 일탈친구 사이의 회귀계수는 .21, 가족유대감과 학업중단 사이의 회귀계수는 -.25, 일탈친구와 학업중단 사이의 회귀계수는 .31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족갈등은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갈등은 학업중단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림 3] 청소년의 가족갈등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3]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familial conflict

[표 6] 청소년의 가족갈등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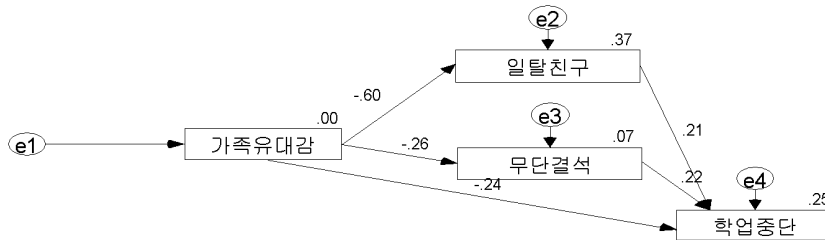
[Table 6]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familial conflict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3.422	1	.092	.717	.706	.623	.701	.494	21.918

3.2.4 청소년의 가족유대감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청소년의 가족유대감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그림 4]는 일탈친구, 무단결석과 부적상관이 있다. 가족유대감이라는 심리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일탈친구와 무단결석이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대감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4이다. 가족유대감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60, 가족유대감 변인과 무단결석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이고 일탈친구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1, 무단결석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2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가족유대감 변인이 학업중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탈친구 변인과 무단결석 변인이 매개변인으로써 학업중단 행동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4] 청소년의 가족유대감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4]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family ties

[표 7] 청소년의 가족유대감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Table 7]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family 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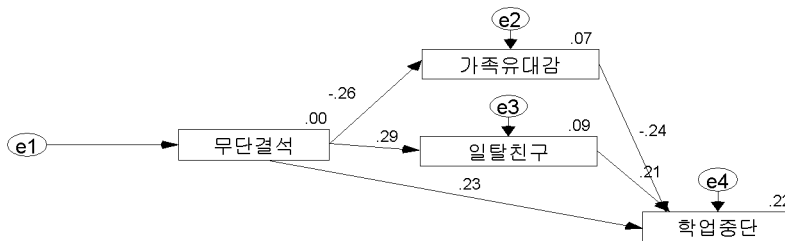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7.344	1	.007	.884	.839	.861	.905	.170	25.344

3.2.5 청소년의 무단결석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청소년의 무단결석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는 가족유대감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일탈친구와 정적상관의 경로[그림 5]를 거친다. 무단결석이라는 요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단결석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

귀계수는 .23이다. 무단결석 변인과 가족유대감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6, 무단결석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9이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4, 일탈친구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1이다. 이것은 무단결석 변인이 학업중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일탈친구 변인을 매개하여 학업중단 행동에 $p < .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5] 청소년의 무단결석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5]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school truancy

[표 8] 청소년의 무단결석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Table 8]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school trua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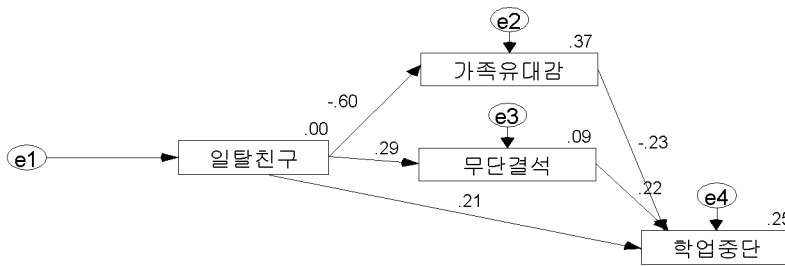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87.660	1	.000	.959	-.411	.934	.924	.028	105.660

3.2.6 청소년의 일탈친구가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청소년의 일탈친구가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는 가족 유대감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무단결석과 정적상관의 경로를 거친다[그림 6]. 일탈친구라는 사회적 변인은 학업 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과 무단결석이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탈친구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1이다. 일탈친구 변인과 가족유대감 변인 사

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60, 일탈친구 변인과 무단결석 변인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9이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3, 무단결석 변인과 학업중단 행동 사이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2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일탈친구 변인이 학업중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 변인과 무단결석 변인이 매개변인으로써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유의한 것이 아니다[표 9].



[그림 6] 청소년의 일탈친구가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
[Fig. 6] the path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deviation friends

[표 9] 청소년의 일탈친구가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

[Table 9] goodness fit index of path analysis to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deviation friends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AIC
경로	2.311	1	.128	.795	.848	.798	.793	.177	20.311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중요한 사항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유대감'과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일탈친구' 요인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가 취한 접근방식처럼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학업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궁극적으로 학업중단이라는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밝힌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학업중단 관련 변인들을 탐구한 연구들에 의하면, [12]는 130여개가 넘는다고 하였고, [13]은 150여개가 넘는다고 지적한 것은 청소년 학업중단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한계와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 있는 내용도 이와 같은 제한점과 난점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 이 연구는 연구대상 청소년을 9세부터 19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어서 탐구대상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과정의 표준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질문의 수준이 연령층의 다양성만큼 다양할 수 밖에 없었음)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첫째,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포함한 위기행동은 가족의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특히 가정의 심리적 환경으로서 '가족유대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포함한 위기행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가족갈등, 일탈친구, 무단결석 등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요인은 모두 가족유대감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위기행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것이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가족 간 심리적 유대감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14]가 중도탈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지적한 것이나, [15]이 학교중퇴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가정 및 학교 내 성인과의 유대감 결함 단계'로 파악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 중 특정 요인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혀 본 바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라는 구조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나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 청소년의 가족갈등이 학업중단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가족유대감이라는 심리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탈친구라는 사회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과 무단결석이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단결석이라는 사회적 변인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가족유대감과 일탈친구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학업중단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16]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남학생과 여학생 간, 자발적 학업중단 학생과 비자발적 학업중단 학생 간에 학업중단의 원인 요인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의 원인 요인은 시대에 따라

서도 다르게 작용한다는 연구[8]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무튼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행동을 기술·설명·예측·통제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족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유대감과 사회적 요인으로서 친구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 위기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인 친구의 중요성, 즉 친구 간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라는 위기행동의 예방 혹은 해결은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친구가 함께 참여하는 친구돕기 혹은 멘토로서의 친구 역할 수행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References

- [1] Keum, M. J., Kwon, H. S., Lee, J. Y., & Lee, H. W., Youth Counseling Program for Unification Studie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pp. 1~106, 2004.
- [2] Yang, K. 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Dropout Adolescents' School Resilienc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3] Jang, S. J., A Relationship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Resilience of Adjustment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Tendencie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4] Jeong, S. W., A Study on attachment style and peer relationship of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VS adolescents in their home,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4, pp. 149~172, 2002.
- [5] Min, W. H., A study of recidivism among adolescents during two years of prob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6] Yee, S. 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Depression,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 pp. 189~218, 1999.
- [7] O, S. H.,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daptation in Broken Family,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Korean Journal

- of Social Welfare Studies, 17(1), pp. 99~125, 2001.
- [8] Cho, S. Y., Lee, M. R., & Park, E. M., The School-Dropout Adolesc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6), pp. 391~403, 2009.
- [9]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Crisis(possibly) Youth Support model Development, Seoul: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5.
- [10] Lee, S. M., Gender Differences of Delinquent Processes across Developmental Stag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4), pp. 162~197, 2005.
- [11] Koo, B. Y., Crisis(possibly) Youth Support model Development,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pp. 79~80, 2005.
- [12] Bae, Y. T., Causal model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dropout and development of discriminant measurement tool,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h.D Thesis, 2003.
- [13] Khu, B. Y., & Yoo, J. M., The neural network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drop out,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pp. 133~146, 2003.
- [14] Yun, Y. K., Park, C. N., Jeon, B. Y., & Jin, M. S., Survey on school dropout youth and alternative education,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2.
- [15] Lee, S. Y., & Nam, S. I., Dropout study of the social adaptation policy development consultation,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1997.
- [16] Keum, M. J., Korean socie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The flipside of achievement-delinquency among Korean adolescents :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pp. 299~317, 2008.

손 충 기(Chung-Ki Son)

[정회원]



- 1978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1994년 2월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2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과정, 교육평가, 학습태도, 학업중단

배 은 자(Eun-Ja Bae)

[정회원]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11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0년 1월 ~ 현재 : 솔솔송상담센터

<관심분야>

교육심리,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과정, 다문화교육